

「해외고급두뇌 초빙」 31명 확정

科總, 9개국서 135명 신청접수 국내연구소 투입활용... 여성도 1명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樂正)가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Brain Pool)사업에 금년 상반기중 9개국에서 1백35명이 지원, 이중 최종적으로 李起豐박사(63·美 델라웨어大 교수·독성병리학) 등 31명의 해외고급과학두뇌의 국내초빙이 확정됐다.

세계적 수준의 해외고급과학기술자를 국내 연구개발현장에 투입,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우수연구인력의 보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WTO체제 출범으로 최단시일내 집중적 해외선진기술 습득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나 부족한 국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한계성을 감안, 해외의 고급동포과학기술자는 물론 외국인고급두뇌를 초빙하여 국가전략과제와 첨단기술습득 필요과제 및 애로기술과제 연구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2천년대 초 과학기술선진국진입을 위한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분야별 초빙인원은 기초 1명, 기계·소재 10명, 전기·전자·정보통신 5명, 화공·생명과학 12명, 자원·해양 2명, 에너지

1명 등이며 나라별로는 미국이 22명(남21·여1), CIS 4명, 중국 3명, 스웨덴·캐나다가 각 1명이다.

국내유치 활용기간별로는 6개월이 12명, 7~12개월과 19~24개월이 각각 9명, 13~18개월이 1명 등이며 이들 가운데 외국인 6명(미국 3명, CIS 3명)과 여성과학자 1명(박영한, 48·美 미시시피大)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초빙대상자들은 정부출연연구소를 비롯 대학 및 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 활용기관에 투입되어 기초분야를 비롯, 기계·소재, 전기·전자·정보통신, 화공·생명과학, 자원·해양 에너지분야 등 국가전략개발대상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케 된다.

한편 해외신청자의 지원동향을 보면 미국을 비롯, 9개국에서 고르게 지원했는데 특히 중국 및 CIS 과학자들이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연령별로는 최신헌문을 습득한 30대의 유능한 과학기술자가 46%, 전공분야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50~60대가 38%를 차지했다.

이들의 선정경위는 당초 지원신청자 1백35명을 평가기준에 따라 학위 및 연구경력(30%), 활용과제의 연관성(50%), 기대효과(20%) 등을 항목으로 분야별선정평가위원회(1차심사)와 총괄선정평가위원회(2차심사) 심사과정을 거친 후 이들을 받아 활용할 30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 최종 31명을



◇ 김종현



◇ Looney



◇ 이인영



◇ 조벽

확정하게 되었다.

이들 31명에게는 항공료·이전비 등 입출국 비용과 체재비(경력·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해외 현지보수보다 높은 수준) 전액이 지

급된다.

이 사업을 위해 과총에서는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특정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해외의 중진급 과학기술자를 발굴하여 초빙하는 등 매년 계속사업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과총은 국가의 조속한 과학기술선진화와 애로기술개발을 위하여 본 Brain Pool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



◇ 이기풍



◇ 이석한



◇ 조한철



◇ 콜로모에츠

부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청했다.

최종초빙대상자 31명의 명단과 활용기관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국적, 소속 및 현직을 나타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J.P.

Looney (美, 미국표준기술연구원 Physicist, ZP-III)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성진 (美, IBM Corporation Advisory Engineer) △콜로모에츠(CIS, Ins. of New Technology, Director of Center) △김드미뜨리(CIS, Moscow Ins. of Radio Engineering Electronics and Automation, Professor) △이석한(美, Univ. of Southern California, Adjunct Associate Professor) △손상혁 (美, Univ. of Virginia, Associate Professor) △황선희 (美, Petra International Consultant) △박영한(美, Alcon Laboratories, Inc., Principal Scientist) △윤병주 (中, 연변대학 이공학원 교수) △코티아에프(CIS, Russian Academy of Science, Senior researcher)

■ 한국기계연구원 = △리스 헨케(美, Russ, Henke Associates, 사장) △B. J. 루프산드 (美, Textron Lycoming Senior Materials, Engineer) = △김홍연(美, Altium사 근무)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원영희(中, 하얼빈공기동력학 연구소) △박재형 (美,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Senior Research Scientist) △김종현(美, McDonnell Douglas Aerospace, Principal Engineer)

■ 국방과학연구소 = △신영식(美,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Professor)

■ 서울대학교 = △조벽(美, Michigan Technological Univ, Associate Professor)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김정환 (美, Univ. of Toledo, 부교수)

■ 한양대학교 = △김정환(美, Univ., of SW Lousiana, Tenured Assistant Prof.)

■ 한국화학연구소 = △심주섭(美, Mobil Research & Development Corporation, Research Consultant) △ 쿠드지아쇼프(CIS, NPO, Senior Scientist) △이기풍(美, Univ. of Delaware, Adjunct Professor)

■ 유전공학연구소 = △이종윤(스웨덴, Karolinska Ins., 연구원)

■ 경북대학교 = △조한철(캐나다, Connaught Lab. Ltd., Research Scientist.)

■ 국립보건안전연구원 = △김용규 (美, Albany Medical College 연구 조교수)

■ 한국과학기술원 = △이제문(美, Washington State Univ., Professor) △안명구(美, Indiana State Univ. Professor)

■ 국립환경연구원 = △박재광(美, Univ. of Wisconsin - Madison Assist., Prof.) △이인영(美, Argonne National Laboratory)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 △최호성(中, 중국과학원 장춘응용화학연구소, 교수)

과총 협동연구지원기관으로 지정

학회·재외과학협중심 산·학·연 협동연구 과기처, 과학재단·STEPI·산기협도 지정

과학기술처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하여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4개 기관을 협동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 지정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협동연구개발지원기관은 △연구개발인력과 연구개발시설 등 협동연구개발자원의 공동활용 지원 △협동연구개발과제의 기획·발굴·알선 및 중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할 기관의 알선 및 중개 △협동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업화 촉진 △과기처장관이 위탁하거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들 지원기관별 담당영역을 보면 과총은 '학회 및 재외과학'을 중심으로한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협동연구개발업무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출연(연)' 중심의 업무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

연구소(STEPI)에서, 그리고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하게 된다.

과기처는 이들 지원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과

기처와 과총을 비롯한 4개 지원기관과 KIST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기초과학지원센터, 한국종합기술금융(주) 등 3개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동연구개발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 및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지원기관간 업무협조체제가 성숙되는 2~3년 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과학기술 워크숍 열어 과총주최 130명 참석, 논문 12편 발표



◇과총주최로 열린 '94국내외학술회의 환경과학기술분과 춘계워크숍에서는 12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成樂正)는 6월1일~2일 양일간 '94국

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환경과학기술워크숍을 서울 노보텔엠베서

더호텔에서 개최했다.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첫날인 1일에는 「대기 오염의 요인과 영향 및 대책」이라는 과제아래 백남준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연구센터)의 「Visibility Study in Seoul, 1993」 등 7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일에는 「고성능 소각시스템 개발」이라는 과제아래 구자공교수(한국과학기술원)의 「난연성 폐기물의 저공해 2단 소각기술」 등 5편의 논문발표가 있은후 28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있었다.

국제 대기환경 학술회의 23개국서 1000여명 참가

한편 과총은 이에 앞서 5월31일부터 동호텔에서 「제4회 국제대기환경 과학학술회의」를 한국환경과학회와 한국대기보전학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6월2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러시아 등 모두 23개국에서 국내외 대기오염 전문가 1백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산성비, 황사, 기후변화, 지구규모의 대기오염, 동아시아와 북극의 황산화물 이동 및 침전 등 총 1백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네덜란드의 린 호르직박사는 아시아 23개국의 최근 아황산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수요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현재의 아황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오는 2010년쯤이면 한반도는 함경북도 일부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세계 최악의 산성비 지대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과학워크숍 참가자 모집 과총·재미과협주최 9월에 멋서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와 공동으로 '94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생명과학분과 추계워크숍'을 오는 9월22일~24일 3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이 워크숍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 석학을 비롯하여 국내외 과학기술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워크숍은 「생명공학의 최근 발전 동향」, 「생명공학기술개발정책」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모두 18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생명공학의 최근 발전동향」 세션에서는 △신의약품개발 △ 생명공학관련 면역학 △생명공학관련 신경생물학 △효소생물공정기술 △재조합세포발효기술 △생물질분리정제기술 등 6개 주제가, 「생명공학기술개발정책」 세션에서는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생명공학기술정책 및 계획수립관련문제 등 3

개 주제가 발표될 예정인데, 각 주제마다 국내학자와 외국전문가가 각각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한편 과총은 이 워크숍에 참가할 한국내 참가자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과총 제3본부 학술팀(전화 : 553-2181/5, FAX 553-2170)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번 참관단은 워크숍에 직접 참가하여 해외 석학들과 토론을 벌이는 한편 미국립보건연구원 등 현지의 생명공학관련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견학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등 해외생명공학의 최근 발전 동향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